

우주영역이 새로운 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래전의 승패가 우주에서 갈릴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우주 전담부대를 창설하고 우주전 능력을 확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영국은 새로운 우주사령부를 창설해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미 우주사령부를 창설한 미국의 경우 우주에서의 우위유지 방안 중 하나로 최근 스페이스X와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위성 발사계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전장 영역인 육·해·공군에 대한 전력 강화도 이뤄지고 있다. 미 해군은 최근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USS 다니엘 이노우에(DDG 118)함 해상 시운전을 완료했으며 싱가포르 공군은 IAD(Island Air Defence)체계와 통합된 아스터 30 SAMP/T 자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체계의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임채무 기자

영국 우주사령부 창설

‘우주국’과 협력... 인력 육성 등 우주작전 주도

공참총장 ‘적 위협 경고’ 하루만에 발표
국가항공우주작전센터 소재
하이 위컴 공군기지에 ‘등지’ 가능성

영국이 새로운 우주사령부를 창설해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영국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창설되는 우주사령부는 훈련 및 개발을 통한 우주인력 육성과 우주 장비를 운반하는 우주능력 사업 등 영국의 우주작전을 주도하게 된다.

영국 국방부 관계자는 “우주사령부는 영국 국방부가 합동지휘구조로서 창설한 우주국과 함께 협력할 예정”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능력이 발전하고 있는 우주 영역은 21세기를 주도하는 강대국으로 남아 있기 위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우주 전담부대를 창설하고 우주전 능력을 확충하는 가운데 영국이 새로운 우주사령부를 창설해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사진은 에어버스의 우주 위성통신체계 모습. 출처=janes.com

해 투자해야 할 중요한 분야”라고 전했다.

앞서 영국 공군은 영국군이 수행하는 모든 우주기반 활동에 대한 책임을 합동지원사령부(JFC)로부터 인수했다. 군사전문지 제인스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새로운 우주사령부가 여전히 합동부대로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영국 공군기지에 위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제인스는 이 기지가 현재 국가항공우주작전센터(NASOC)가 소재한 하이 위컴(High Wycombe) 공군기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우주사령부 창설에 관한 소식은 마이크 위그스톤 영국 공군참모총장이 우주 영역에서 야기되는 적의 위협을 경고하면서 영국이 긴요한 우주기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더욱 많은 자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미국 국방부 우주개발국, 스페이스X와 위성 발사 계약 체결

1억5000만 달러 규모... 2023년 3월까지 28기 궤도 안착

미 국방부 우주개발국이 2회에 걸친 위성 28기 발사사업의 계약 업체로 스페이스X(SpaceX)사를 선정해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첫 번째 위성 발사는 2022년 9월 이뤄질 예정이며 데이터 전송 위성 20기와 미사일

추적 위성 8기가 2회에 걸쳐 각각 발사된다. 미 국방부는 “발사된 위성들은 2023년 3월 31일까지 모두 궤도에 안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위성이 모두 궤도에 안착한 후 우주개발국이 2년마다 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우주개발국은 록히드마틴, 요크 스페이스 시스템과 각각 10기의 데이터 전송 위성 제작을 계약했다. 스페이스X, L3해리스와는 각각 4기의 미사일 추적 위성 제작 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레이시온의 이의제기로 현재 제안서를 재평가하는 상황이다.



미 우주개발국이 예시로 만든 위성의 모습. 출처=c4isrnet.com

미국 해군,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해상 시운전 완료

이지스 기본형 9 전투체계 장착

미 해군이 최근 메인주(州) 배스 지역 바다에서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인 USS 다니엘 이노우에(DDG 118)함의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시운전은 항만 내 시운전과 해상 시운전으로 진행됐으며 건조업체인 제너럴다이내믹스 산하 배스 아이언 워크스 조선소와 해군이 이 합정의 체계 및 납품 준비 상황을 평가했다.

미 해군은 “이번 시운전에 이어 감찰조사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인수 시운전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인수 시운전 기간에는 합정의 품질과 운용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체계에 대한 검사 및 평가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다니엘 이노우에함은 알레이 버크급 플라이트 IIA 구축함으로 이지스 기본형 9 전투체계가 장착됐다. 여기에는 통합공중·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된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이 포함됐다. 이 체계는 다양한 위협에 대한 빠른 대응시간, 높은 화력, 증가된



미 해군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USS 다니엘 이노우에(DDG 118)함의 모습. 출처=navyrecognition.com

전자전 대응 능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킴피셔 기뢰 회피능력, 편제 램프스 MK III MH-60 헬기 2대를 운용할 수 있는 한 쌍의 헬기 격납고, 폭발 차단용 격벽, 지역 전기분배체계, 첨단 네트워크 체계 등도 갖추고 있다. 길이 155m, 배수량 9300톤, 최고 속도 30kt, 20kt 속도로 항해 시 최대 순항거리는 4400해리다.

싱가포르 아스터 30 SAMP/T체계 운용 및 세부내용 공개

AI 적용 최신 지대공미사일체계

싱가포르 공군이 최근 서부 림추캉 캠프II 기지에서 실시한 개량형 IAD(Island Air Defence)체계 시연행사에서 아스터 30 SAMP/T 자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체계의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MBDA와 탈레스의 합작투자업체인 유로샘이 개발·제작한 아스터 30 SAMP/T 미사일은 최신 지상기반 방공미사일 체계다.

싱가포르 공군이 2006년 최초 개념화한 이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IAD 체계에 통합돼 지난해 8월부터는 하루 24시간 방공작전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 체계를 운용하는 나라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군이 감시·탐지·추적·발사통제를 위해 아라벨 다기능 레이더를 운용하는 SAMP/T 체계와 달리 싱가포르 공군이 운용하는 SAMP/T 미사일은 전투관리체계를 통해 명령받는 IAD 체계의 전



싱가포르 공군이 최근 공개한 아스터 30 SAMP/T 체계의 모습. 출처=janes.com

투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돼 있다.

여기서 관심을 가질 부분은 전투관리체계다. 싱가포르 국방과학기술원이 개발한 이 체계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기술이 적용된 의사결정 지원체계가 특징적이며 위협을 자동으로 분류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건의함으로써 운용자의 업무량을 줄이고 대응시간을 단축한다.

자료제공 =글로벌디펜스뉴스